

# 직장인의 자기결정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의 이중매개를 중심으로

임재성 (삼성전기(주) 박사)\*

##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전쟁과 기후변화,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술혁신의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의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생태계의 변동성, 복잡성, 모호성, 불확실성이 지속적 확장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계획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은 생존전략에 의해 한계사업정리, 해고 등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의도치 않게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요인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속적 경제활동을 위한 대안으로 창업을 모색하고 있다. 창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장인의 자기결정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310명의 유효 data를 기반으로 SPSS와 AMO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직장인의 자기결정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자기결정성이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에 정(+)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창업에 바로 도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인생경로 관점에서 혁신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창업지원정책인식도를 높여서 단계적으로 준비하려는 심리가 작동된 것을 판단된다. 둘째,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창업지원정책인식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인식은 창업을 고려할 때 체감도가 높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혁신성이 창업지원정책인식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예비창업자들이 혁신성을 발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창업지원정책인식의 실효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은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고, 창업지원정책인식은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여 창업의지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창업관련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경제활동의 비중이 높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대상의 차별성과 연구범위 확대 측면에서 학문적 가치가 있고, 자기결정성의 동기만으로는 창업의지를 자극되지 않는다는 점과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의 완전매개효과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정책 등의 실무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 표본의 선정 및 분석과정에서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한계성과 창업의지가 형성되어 창업행동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정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다소 부족했던 인간심리 동기와 창업 간의 관련성을 다룬 학문적 및 실무적 측면에서 직장인의 창업 전환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며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핵심주제어: 창업의지, 자기결정성, 혁신성, 창업지원정책인식, 직장인

## 1. 서론

최근 글로벌 경영환경과 관련하여 IMF(국제통화기금), WB(세계은행),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전망을 정리해보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전쟁과 기후변화, 지정학적 불안고조, 글로벌 규제 등 VUCA(Volatile; 변동성, Uncertainty; 불확실성, Complexity; 복잡성, Ambiguity; 모호성) 시대의 지속적 확장으로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계획이 어려워지고, 조직은 생존을 위해 민첩하게 대응해야 함에 따라 한계사업정리, 인력재배치, 해고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은 현재 급변의 글로벌 경영환경의 VUCA 시대에서는 기업과 개인이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산업생태계의 불안정성은 직장인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직무 및 고용불안정성이 확산되면서 인생 경로 결정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WEF(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른 산업생태계의 급변은 실업을 유발하고 있어 주요 선진국은 일자리 문제를 위해 기업의 성장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적 발전전략으로 창업기업을 집중육성,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확보를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노현철, 2018).

\* 단독저자, 삼성전기(주) 경영학박사, ljs3131@naver.com

투고일: 2024-01-15

· 1차 수정일: 2024-02-12

· 2차 수정일: 2024-02-21

· 게재확정일: 2024-02-26

한편 동아일보(2023)의 “직장인 퇴직 예상 연령과 희망 연령” 조사에서 본인은 법정 정년에 퇴직을 희망한다. 반면에 실제 퇴직을 예상하는 나이는 53.1세로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는 정년제도가 없는 곳이 많아 전년 60세를 체감하기 어렵다. 한편 통계청(2023)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정년으로 퇴직한 비율은 8.5%에 불과했으며, 노후 준비가 부실한 탓에 일을 그만두길 원하는 평균나이는 73세로 나타났다. 이코노미뉴스(2023)는 직장 재직자 10명 중 7명 “창업할 의향”으로 나타났으며, 창업하려는 배경에는 “현재의 조직에서 고용불안정성이 높아 퇴직 이후를 대비하기 위함이다.”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100세 시대 대안으로 창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70세 이후까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질적인 행복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급변의 사회적 현상에서 인생경로와 관련하여 선택과 집중을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창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적,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 등의 사전준비와 정부의 다양한 창업정책지원 등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창업 실행을 준비하기 위한 행동 강화는 예비창업자들의 내적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업관련 선행연구에서 내재적 동기부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기결정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재하다(김성환 외, 2015). 본 연구는 직장인의 자기결정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및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간의 사이에게 영향을 주는 핵심변수의 연구는 개인의 경제활동과 국가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첫째, 직장인의 자기결정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직장인의 ‘자기결정성’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해 불확실성과 변동성 등이 확대되는 산업생태계의 환경에서 직장인의 자기결정성에 따른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창업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인지와 기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실증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직장인의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실증분석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혁신을 추구하려는 혁신성이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간의 사이에서 핵심적인 자극제 요소인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직장인의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지원정책인식의 매개효과를 실증분석한다.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인식이 창업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직장인의 자기결정성의 사이를 매개하는지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가설검증을 통해 본 연구가 추구하는 차별점과 시사점 등을 제시한다. 또한 경제활동의 비중이 높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대상의 차별성과 연구범위 확대 측면에서 학문적 가치가 있고, 선행연구에서 다소 부족했던 인간심리 동기이론과 창업의지 간의 관련성을 다룬 측면에서 실무적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창업 & 창업의지

창업과 창업자(기업)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창업자(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롭게 창업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기업,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로 정의하고 있다(법제처, 2018). 창업은 보편적으로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창조하는 단계이며(Gartner, et al., 1992), 창업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준비해가는 창업가의 의지가 행동으로 발현되는 과정이다(Katz & Gartner, 1988).

창업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으로 즉흥적일 수 없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업의지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Tung, 2011). 또한, 창업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포착하여 관련 사업을 실현하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자신만의 사업을 소유하는 것이며(Atitsogbe et al., 2019), 창업의지는 향후 지속적 경제활동을 위한 대안으로 자신만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의 의지 혹은 열정으로 정의하고 있다(임재성·양동우, 2022).

창업을 바라보는 인식은 개인적 차원의 성취하는 삶의 한 측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활동의 한 측면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창업에 대한 인식은 상이할 것이다(정헌배, 2016). 직장인들은 의도치 않게 유발되는 지속적인 직장역경의 상황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적 경제활동으로 창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역경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창업의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임재성, 2023).

직장에서의 다양하게 경험하는 직무는 창업에 임하는 인식과 태도 관계에서 긍정적이다. 이는 재직하면서 취급하는 전문적인 정보와 기술적 실무, 관련 인적 네트워크 등 실무경험 기반으로 창업에 도전하게 된다(Yukongdi & Cañete, 2020). 창업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와 사회 전반의 경제적 부를 상승시킨다(Gielnik et al., 2020).

### 2.2.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Ryan & Deci(2000)은 자기결정성이론에 대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내포된 행동을 동기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론이다. 자기결정성을 외부 압박의 상황이나 보상의 정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 개개인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Ryan & Deci, 2000; 정형진, 2023, 개인용). 또한 자기결정성이 증가됨에 따라 동기가 내재화를 촉진하여 더욱 큰 영향력이 발현된다는 것이다.

자기결정성은 사회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기본 심리적 욕구로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이 있다. 또한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내재적 동기가 촉진되기 때문에

심리적 욕구의 지지는 행동의 동기와 성장에 필수적 요소로 고려된다(조정현, 2013).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준비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가의 심리 욕구와 내재적 동기의 전체가 필요하다(Yoo, 2013). 자기결정성이 심리적 욕구에 의해 창업동기와 함께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의 핵심요소이다(Ryan & Deci, 2000).

Chang & Choi(2013)는 자기결정성은 예비 창업가의 기업가적 지향성과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결정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 Issam & Sarah(2023), 김진희(2019) 등이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 자기결정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 2.3. 자기결정성과 혁신성

자기결정이론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따라 개인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심리학 분야의 동기이론의 하나로(Ryan & Deci, 2000), 직장인이 경험할 수 있는 내재적 동기(관심과 즐거움을 위한 것), 외재적 동기(목적을 이루려는 것), 무동기 등으로 분류된다(Gagné et al., 2022).

혁신성은 독특한 창의성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거나 새로운 행동방식을 추구하려는 성향이며(안은주, 2021), 세상에 없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유용한 가치로 창조하려는 정신이다(Drucker, 1986).

예비창업자들은 취업보다 창업에 대한 인식과 창업하기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한 도전과 용기이며, 개인의 인생 및 경력 경로에서 중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창업은 창업자의 심리와 내적 동기가 전체되어야 한다(Yoo, 2013).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유능감, 자율성)이 높으면 기업가 정신(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성환 외, 2015; Chang & Choi, 2013). 이처럼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혁신성)과 창업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창업자들의 심리적 특성인 자기결정성을 함양시키는 자신감과 역량 교육을 통해 스스로 선택하는 결정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김성환 외, 2015).

자기결정성과 혁신성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에서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의 자유가 증가할 경우 자신의 일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통제력, 조직이나 업무의 권한이 많아져서 개인의 혁신역량이 향상된다. 또한 직장에서 내재적 동기를 지닌 사람들은 자기결정권의 확대로 자신의 혁신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Amabile, 1988). 따라서 Sheldon(1995)은 개인의 자기결정성이 혁신적인 사람들의 핵심특성임을 입증했으며, Mumford & Gustafson(1988)은 조직이 자기결정성을 지원할 때 혁신성은 증가될 수 있다.

자기결정성과 기업가정신(혁신성)의 관계에서 Mudambi &

Navarra(2007)는 자기결정성을 권력 승계로 인식하고 개인의 혁신성이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기결정성이 혁신성에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2: 자기결정성은 혁신성에 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 2.4. 자기결정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

창업관련 선행연구에서 내적 동기를 지닌 사람들은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통해 혁신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Amabile, 1988). 따라서 내부적인 동기로 인한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은 창업의지에 필수적 충족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박재춘·김성환, 2017).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자 자금지원, 기술교육, 경영지원, 사후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며(Johnson, 1990), 정부의 창업지원프로그램 구성요소에는 예비창업자의 잠재적 특성과 능력의 창출, 전문가 네트워크, 아이디어 창출 그리고 창업준비공간과 자금지원 등이 포함된다(Gartner & Vesper, 1994).

창업지원정책인식은 창업에 앞서 창업을 실행하려고 할 때 사전에 준비과정에서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을 통해 제품개발과 서비스창출에 필요한 지원제도 및 시스템을 인식하는 정도로(Le & Loan, 2022),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창업지원정책들을 통해서 한층 더 증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기결정성은 정부지원제도와외의 상호작용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안희수, 2019).

정부에서 주관하는 창업코칭, 창업교육, 창업자금지원, 창업컨설팅, 경영지원 등의 정부지원정책인식은 예비창업자의 창업동기가 성공할 가능성에 대한 확신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예비창업자 개인특성(자율성, 자기효능감)은 정부의 창업교육을 통해 조절 가능하다(송중호, 2011).

자기결정성이 창업지원정책인식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의 선행연구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이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정부 창업교육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며(김성환 외, 2015), 자기결정성은 정부지원제도와외의 상호작용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을 줄 수 있다(안희수, 2019). 등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자기결정성이 증가하면 정부지원정책인식에 긍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어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3: 자기결정성은 창업지원정책인식에 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 2.5. 혁신성과 창업의지

혁신성은 독특한 창의성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거나 전에 없던 새로운 행동방식을 추구하려는 성향이며(안은주, 2021), 비교적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침투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업가가 항상 새로운 기회를 찾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기업가가 소유해야 하는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특성 중 하나로 간주된다(Entrialgo et al. 2000).

세상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유용한 가치로 창조하려는 정신으로(Drucker, 1986), 혁신성이 증가 될수록 새로운 발견에 대한 호기심이 자극되기 때문에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andongwe & Jaravaza, 2020). Schumpeter(1934)는 혁신성을 새로운 제품을 발명과 서비스, 새로운 생산방법과 프로세스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성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을 기업가 정신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기업가는 낡은 것을 파괴하고 전혀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창조적 파괴자’라고 강조하였다(이수아, 2019 재인용). 또한 기업가정신을 위험감수성, 진취성, 혁신성으로 3개의 구성요소로 Miller(1983)가 제시하였으며, Covin & Slevin(1989), Ferreras-Méndez et al.(2021), 이수아(2019), 안은주(2021) 등 여러분의 연구자들이 이 구성요소를 활용하였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혁신성은 창업의지를 유의한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Entrialgo et al., 2000; Mandongwe & Jaravaza, 2020; 정행로, 2022; 임재성·양동우, 2022). 혁신성은 예비창업자들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실현하려는 창업의지에 중요한 요소로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4: 혁신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 2.6. 창업지원정책인식과 창업의지

창업지원정책인식은 창업실행의 준비과정에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인식하는 정도로(Le & Loan, 2022), 창업관련 지식이나 기술지원에 대한 정보가 증가하면 창업동기를 촉발할 수 있으며, 창업의지를 촉진시킬 것이다(조병주, 1998). 창업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요소로 정부의 창업지원, 경제적 요건, 기술역량, 비재무적과 재무적 등의 지원으로 분류하였으며, 정부지원제도인식이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이 있다(Gnyawali & Fogel, 1994).

창업관련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은 창업의지를 가진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실천에 도움을 준다(윤방섭, 2004). 또한 창업의도에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도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창업지원정책인식의 정도가 높은 경우 창업의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홍정

표·양해술, 2014). 정부의 경영기술 및 금융지원 등 창업지원정책이 지식기술기반 창업의도에 긍정의 영향을 준다(김봉준·조성의, 2014).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들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창업지원제도인 창업상담, 컨설팅지원, 조세지원, 창업자금지원제도 등의 인식이 높으면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노현철, 2018). 창업관련지식과 창업지원제도인식 등의 창업환경이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예비창업자의 창업관련지식과 지원제도인식이 증가할수록 창업의지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다(안희수, 2019)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5: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의지에 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 2.7.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

Schumpeter(1934)는 혁신성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가정신의 중요 요소로 보았으며, 기업가는 ‘창조적 파괴’를 담당하는 행위자이다(이수아, 2019 재인용). 혁신성을 세상에 없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유용한 가치로 창조하려는 정신이다(Drucker, 1986).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자 자금지원, 기술교육, 경영지원, 사후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며(Johnson, 1990), 정부의 창업지원프로그램 구성요소에는 예비창업자의 잠재적 특성과 능력의 창출, 전문가 네트워크, 아이디어 창출 그리고 창업준비공간과 자금지원 등이 포함된다(Gartner & Vesper, 1994). 창업지원정책인식은 창업에 앞서 창업을 실행하려고 할 때 사전에 준비과정에서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을 통해 제품개발과 서비스창출에 필요한 지원제도 및 시스템을 인식하는 정도로(Le & Loan, 2022),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관련 선행연구에서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에 정부지원정책간에 혁신진취성은 정부의 자금지원과 물리적 인프라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강은정, 2023). 기업가정신(혁신성·진취성)과 창업기업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부의 자금지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이준구, 2021), 사회적기업가정신(혁신성·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교육 및 자금지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인식은 기업가적 특성의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안은주·양동우, 2020). 따라서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의 매개 및 조절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6: 혁신성은 창업지원정책인식에 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 2.8. 매개효과

직장에서 내재적 동기를 지닌 사람들은 자기결정권의 확대로 자신의 혁신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Amabile, 1988). Mumford & Gustafson(1988)은 조직이 자기결정성을 지원할 때 혁신성은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혁신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효과를 확인하였다(Mandongwe & Jaravaza, 2020; 정행로, 2022). 따라서 혁신성은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간의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예비창업자의 창업관련지식과 창업지원정책인식이 증가할수록 창업의지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안희수, 2019). 또한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이 창업의지 관계를 정부창업교육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김성환 외, 2105). 따라서 창업지원정책인식은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도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창업지원정책인식의 정도가 높은 경우 창업의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홍정표·양해술, 2014). 사회적기업가정신(혁신성·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교육 및 자금지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인식은 기업가적 특성의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안은주·양동우, 2020). 따라서 창업지원정책인식은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의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7:** 혁신성은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H8:** 창업지원정책인식은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H9:** 창업지원정책인식은 혁신성과 창업의지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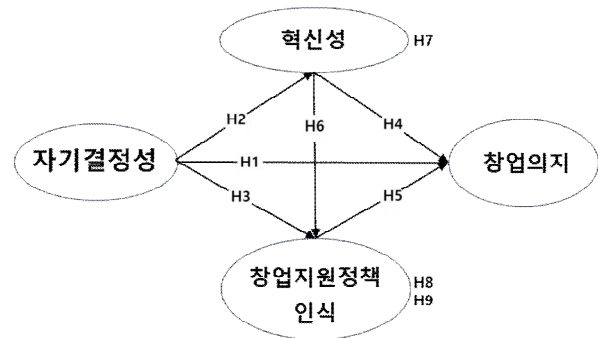
### 3.1.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는 학습전이모델(Kirwan & Birchall, 2006)과 Holton et al.(2000)의 연구에서 개인의 행동이 능력과 동기부여되어 성과 및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모델을 토대로 고려하였다. 이는 직장인들이 현재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산업생태계를 재인식하면서 형성되는 심리적 욕구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대안을 위한 행동의 동기를 촉진하게 되어 성과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되는 관계를 반영하였다.

학습전이모델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주어진 환경에

서 동기부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변화와 성장 전이를 억제하거나 촉진하는데 있어 환경적 요인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환경과 사건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직장인의 산업생태계 배경은 자기결정성의 동기를 기반으로 창업전환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 등의 환경과 사건 요인을 고려하여, 학습전이 모델과 Holton et al.(2000)의 모형기반으로 형성된 황재일(2013) 연구를 토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3년 이상된 창업기업 재직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모형<그림 1>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국내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도구들을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Likert 7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1=‘전혀 그렇지 않다’, 4=‘보통’,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표 1>과 같이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를 설계하였다.

창업의지는 “향후에 목적을 갖고 창업을 하려는 창업자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에 대한 의지 또는 열정”으로 정의하고, 이선협(2020), 임재성·양동우(2022)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나는 종업원보다 새로운 기업을 창업할 생각이 있다.” 등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기결정성은 선행연구와 같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등 3개의 하위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외재적·내재적 동기로 인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하려는 인식과 행동”으로 정의하고, Ryan & Deci(2000), 안희수(2019)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나는 평소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편이다.” 등 1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혁신성은 “세상에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창의적 아이디어로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으로 정의하고, Drucker(1986), 안은주(2021)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나는 항상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등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등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창업지원정책인식은 “창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할 때 안정적 창업을 위해 지원하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개발에 필요한 제도 및 시스템 인식”으로 정의하고, Le & Loan(2022), 업태규(2023) 등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금(무상)이 창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등 7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1> 조작적 정의와 설문지 구성

| 변수        | 조작적 정의  | 측정문항   | 참조문헌   |                         |
|-----------|---|--|--|-------------------------|
| 창업 의지     | 향후 목적을 갖고 창업을 하려는 창업자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에 대한 의지 또는 열정                               | 나는 종업원보다 새로운 기업을 창업생각  | 노현철·현병환(2017), 이선협·안은재(2018)                           |                         |
|           |   | 나는 창업에 많은 관심으로 창업 정보를 확인한다.                                    |  |                         |
|           |   | 차별화된 기술과 경험으로 창업 가능  |  |                         |
|           |   | 나는 가까운 장래에 직접 창업 또는 기존업체 인수하여 경영할 것이다.<br>위험있더라도 준비해서 창업하고 싶다. |  |                         |
| 자기 결정성    | 자신의 행동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여, 자신이 그 행동의 주체라는 신념                                 | 다른 사람에게 의해 통제 받지 않는 편  | Ryan & Deci(2000), 홍진기(2016), 안희수(2019), 이하린·박윤희(2021) |                         |
|           |   | 평소에 나 다음을 유지하는 편   |  |                         |
|           |   | 평소 일 처리에서 스스로 결정 기회 많다.  |  |                         |
|           |   | 일상생활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편   |  |                         |
|           |   | 대체로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  |  |                         |
|           |   |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   |  |                         |
|           | 유능성   | 자신이 유능하려는 욕구로써, 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재능 발휘하여 효과적으로 행동하려는 욕구             |  | 평소 내 자신이 매우 효율적이라 느낀다.  |
|           |   |  |  | 내가 하는 일들로부터 성취감 느낀다.    |
|           |   |  |  | 주변에서 내가 업무를 잘한다고 말한다.   |
|           |   |  |  | 주어진 일을 잘 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
|           |   |  |  |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느낀다.  |
|           |   |  |  |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많다고 느낀다. |
| 관계성       | 다른 사람들과 관심을 주고 받는다는 느낌, 함께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느낌.                                      | 나는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  |                         |
|           |   |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편이다.  |  |                         |
|           |   |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고 생각한다.  |  |                         |
|           |   | 주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  |                         |
|           |   |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  |  |                         |
|           |   | 사람들과 평소 감정을 공유하는 편이다.  |  |                         |
| 혁신성       | 세상에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창의적 아이디어로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  | 새로운 제품이나 신기술 등에 관심이 많다.  | Drucker(1986), 안은주(2021), 임재성·양동우(2022)                |                         |
|           |   | 창의력이 뛰어나고 독창적인 편이다.  |  |                         |
|           |   |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에 흥미 느낀다.  |  |                         |
|           |   | 새로운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한다.   |  |                         |
|           |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한다.  |  |                         |
|           |   | 다른 사람보다 창조적인 행동을 한다.   |  |                         |
| 창업지원 정책인식 | 창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할 때 안정적 창업을 위해 지원하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개발에 필요한 제도 및 시스템 인식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금(무상)이 창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Le & Loan(2022), 노현철(2018), 유호연(2021), 업태규(2023)       |                         |
|           |   | 정부의 창업지원지원자금, 재창업자금은 창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                         |
|           |   | 정부 기관의 기술지도가 창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                         |
|           |   | 신제품 개발 및 신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 창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                         |
|           |   | 창업자에 대한 창업관련 교육이 창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                         |
|           |   | 창업기업의 컨설팅비용 지원제도가 창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                         |
|           |   | 창업에 필요한 공간제공 (창업보육센터 등)이 창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                         |
| 인구특성      | 성별, 연령, 학력, 회사유형, 업종, 직책, 근무기간, 경험, 결혼여부, 부양가족, 월평균소득                           |  |  |                         |

### 3.3. 연구방법

연구는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1개월에 걸쳐 국내 기업에서 재직자 남녀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대해 웹(web)기반 설문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310건의 유효한 설문지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모형과 각 변수의 가설을 검증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설문 표본의 일반적 특성으로 빈도(Frequency)분석, 기술통계(Descriptive) 분석을 통해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확인하였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로 연구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여 요인부하량, 개념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값을 확인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판별타당성과 집중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절대적합지수와 증분 적합지수를 확인함으로써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다섯째,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구축하고 AMO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9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여섯째, AMO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팬텀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이중매개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가설은 유의수준  $p < 0.05$ 에서 채택과 기각을 판단하였다.

## IV. 실증 분석 결과

### 4.1. 일반특성과 기술통계

<표 2>는 본 연구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다. 직장인 기업별로 대기업 24.8%, 중견기업 24.5%, 중소기업 24.5%, 창업기업 26.1%로 응답하였고, 성별로는 남성 185명(59.7%), 여성 125명(40.3%)로 통계분석용 표본으로서 적절하며,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n=310)

| 항목    | 분류       | 명   | %     | 항목      | 분류        | 명    | %     |
|-------|----------|-----|-------|---------|-----------|------|-------|
| 성별    | 남자       | 185 | 59.7  | 직책      | 사원/주임     | 92   | 29.7  |
|       | 여자       | 125 | 100.0 |         | 대리/과장     | 70   | 52.3  |
| 연령    | 20-29세   | 32  | 10.3  | 기업 규모   | 차장/부장     | 96   | 83.2  |
|       | 30-39세   | 106 | 44.5  |         | 임원급       | 40   | 96.1  |
|       | 40-49세   | 95  | 75.2  |         | 기타        | 12   | 100.0 |
|       | 50-59세   | 63  | 95.5  |         | 창업기업      | 81   | 26.1  |
|       | 60세이상    | 14  | 100.0 | 중소기업    | 76        | 50.6 |       |
| 학력    | 고졸 이하    | 25  | 8.1   | 회사 규모   | 중견기업      | 76   | 75.2  |
|       | 2년제대학    | 30  | 17.71 |         | 대기업       | 77   | 100.0 |
|       | 4년제대학    | 224 | 90.0  |         | 200만원미만   | 10   | 3.2   |
|       | 대학원이상    | 31  | 100.0 | 월 평균 소득 | 200-400만원 | 76   | 27.7  |
| 근무 연수 | 10년미만    | 124 | 40.0  |         | 400-600만원 | 97   | 59.0  |
|       | 10-20년미만 | 115 | 77.1  |         | 600-800만원 | 67   | 80.6  |

|       |          |     |       |       |         |     |       |
|-------|----------|-----|-------|-------|---------|-----|-------|
| 결혼 유무 | 20-30년미만 | 59  | 96.11 | 부양 가족 | 800만원이상 | 60  | 100.0 |
|       | 30-40년미만 | 11  | 99.7  |       | 기혼      | 112 | 36.1  |
|       | 40년이상    | 1   | 100.0 |       | 미혼      | 198 | 100.0 |
| 업종    | 제조업      | 129 | 41.6  | 부양 가족 | 1인      | 56  | 18.1  |
|       | 정보통신IT   | 38  | 53.9  |       | 2인      | 41  | 31.3  |
|       | 유통업      | 7   | 56.1  |       | 3인      | 111 | 67.1  |
|       | 서비스/음식   | 45  | 70.6  |       | 4인      | 87  | 95.2  |
|       | 금융/보험    | 64  | 91.3  |       | 5인      | 10  | 98.4  |
|       | 기타       | 27  | 100.0 |       | 6인 이상   | 5   | 100.0 |

<표 3>은 본 연구의 잠재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이다. 자기결정성의 하위변수인 자율성과 유능성의 값이 각각 4.9758과 4.8674으로 가장 높은 변수군이었으며, 창업의지와 혁신성의 평균값이 각각 3.9757과 4.6882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변수군이었다. 이는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복잡성, 변동성이 증가하는 산업생태계에서 생존경쟁력 높이기 위해 자신의 강점이나 한계를 확인하여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위기의식을 인식한 결과로 판단된다. 반면, 글로벌 경영환경의 급변과 실패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 창업의지와 혁신성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일한 응답자로부터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정보(data)를 수집함에 따라 발생하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Podsakoff et al., 2003) 방식을 따라 검증을 수행하였다.

주축요인 추출 방식에 의해 요인을 추출하고 추출할 요인을 1로 고정하여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제1요인 설명력은 37.830%로 총 설명력의 50%에 미치지 않으므로, 동일방법편의로 인한 왜곡 현상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기술통계

| 변수       | 최소 값 | 최대 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창업의지     | 1.00 | 6.86 | 3.9757 | 1.53 |
| 자율성      | 2.67 | 7.00 | 4.9758 | .87  |
| 유능성      | 2.50 | 7.00 | 4.8674 | .88  |
| 관계성      | 1.50 | 7.00 | 4.7861 | .97  |
| 혁신성      | 1.33 | 7.00 | 4.6882 | 1.07 |
| 창업지원정책인식 | 1.00 | 7.00 | 4.8859 | 1.07 |

### 4.2.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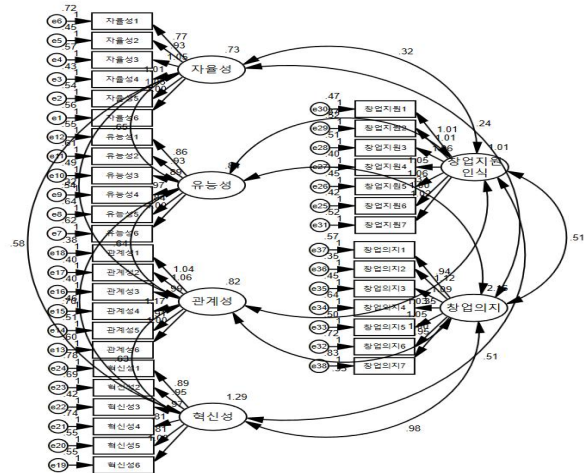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연구요소으로 활용되는 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도출하였고,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대 우도법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을<그



림 2>과 같이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연구가설을 기반으로 상호간 관계가 어떻게 제시되는가를 추출하는 단계로서 연구자의 이론적 배경 지식의 결과를 가설형태의 모형으로 체계화하여 부분적으로 원소의 값이 제약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요인부하량을 탐색하고,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분석할 수 있어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 확인에 유용하게 활용된다(우중필, 2015). 총 38개의 측정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탈락된 문항이 없이 타당성이 충족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 측정문항  | 1           | 2           | 3           | 4           | 5           | 6           |
|-------|-------------|-------------|-------------|-------------|-------------|-------------|
| 창업의지2 | <b>.913</b> | .142        | .097        | .038        | .027        | .160        |
| 창업의지3 | <b>.908</b> | .120        | .051        | .043        | .018        | .150        |
| 창업의지5 | <b>.898</b> | .165        | .037        | .042        | .056        | .122        |
| 창업의지1 | <b>.869</b> | .161        | .084        | .021        | .022        | .130        |
| 창업의지4 | <b>.867</b> | .108        | .034        | .016        | .117        | .193        |
| 창업의지6 | <b>.849</b> | .099        | .088        | .069        | .034        | .230        |
| 창업의지7 | <b>.829</b> | .163        | .037        | .009        | .065        | .181        |
| 창업지원4 | .098        | <b>.847</b> | .123        | .084        | .069        | .160        |
| 창업지원5 | .151        | <b>.845</b> | .053        | .058        | .080        | .093        |
| 창업지원1 | .160        | <b>.834</b> | .125        | .077        | .089        | .030        |
| 창업지원6 | .120        | <b>.818</b> | .101        | .095        | .155        | .138        |
| 창업지원7 | .093        | <b>.817</b> | .086        | .145        | .068        | .113        |
| 창업지원3 | .146        | <b>.814</b> | .113        | .114        | .072        | .103        |
| 창업지원2 | .170        | <b>.801</b> | .136        | .055        | .146        | .069        |
| 관계성4  | .150        | .077        | <b>.805</b> | .188        | .193        | .177        |
| 관계성5  | -.027       | .197        | <b>.757</b> | .206        | .103        | .172        |
| 관계성1  | .107        | .110        | <b>.739</b> | .167        | .363        | .121        |
| 관계성3  | .029        | .217        | <b>.738</b> | .227        | .217        | .179        |
| 관계성2  | .109        | .136        | <b>.735</b> | .199        | .355        | .091        |
| 관계성6  | .104        | .079        | <b>.720</b> | .223        | .183        | .206        |
| 자율성1  | .035        | .069        | .061        | <b>.793</b> | .090        | .056        |
| 자율성2  | .042        | .061        | .252        | <b>.702</b> | .252        | .178        |
| 자율성4  | .015        | .161        | .315        | <b>.695</b> | .243        | .118        |
| 자율성6  | -.024       | .196        | .222        | <b>.689</b> | .215        | .213        |
| 자율성5  | .102        | .146        | .274        | <b>.635</b> | .333        | .079        |
| 자율성3  | .077        | .052        | .286        | <b>.584</b> | .378        | .240        |
| 유능성5  | .010        | .231        | .208        | .178        | <b>.727</b> | .088        |
| 유능성6  | .154        | .052        | .292        | .221        | <b>.671</b> | .262        |
| 유능성3  | .022        | .134        | .287        | .274        | <b>.668</b> | .145        |
| 유능성4  | .038        | .158        | .288        | .402        | <b>.652</b> | .204        |
| 유능성1  | .089        | .129        | .241        | .298        | <b>.624</b> | .209        |
| 유능성2  | .100        | .126        | .389        | .280        | <b>.509</b> | .252        |
| 혁신성3  | .254        | .179        | .216        | .233        | .281        | <b>.709</b> |
| 혁신성2  | .373        | .053        | .228        | .047        | .194        | <b>.700</b> |
| 혁신성1  | .361        | .166        | .092        | .159        | .088        | <b>.698</b> |
| 혁신성6  | .382        | .080        | .275        | .105        | .248        | <b>.669</b> |
| 혁신성5  | .209        | .273        | .240        | .315        | .124        | <b>.654</b> |
| 혁신성4  | .214        | .233        | .200        | .190        | .225        | <b>.630</b> |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표 5>와 같이 구성개념 타당성은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으로 검증할 수 있다.

<표 5> 구성개념타당성 검정기준

| 구분    | 방법           |                      |
|-------|--------------|----------------------|
|       | 집중타당성        | 요인부하량 / 유의성          |
|       | 평균분산추출(AVE)  | .5 이상                |
|       | AVE          | .5 이상                |
|       | 개념신뢰도(C.R.)  | .7 이상                |
| 판별타당성 | AVE와 상관계수 비교 | 해당 변수 AVE 제곱근 > 상관계수 |

평균분산추출(AVE)은 이영섭·최주철(2018)에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제공한 값들의 합을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제곱의 합과 오차분산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또한 개념신뢰도(C.R.)는 Fornell & Larcker(1981)에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합의 제곱을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합의 제곱과 오차분산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본 구성개념 타당성 검정 결과는 <표 6> 및 <표 7>과 같다.

집중타당성 검정결과, 각 잠재변수들의 구성개념은 모두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이고,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각각의 구성개념 평균분산추출과 개념신뢰도 결과를 보면 자율성은 0.505와 0.859, 유능성은 0.515와 0.864, 관계성은 0.587과 0.895, 혁신성은 0.503과 0.858, 창업지원정책인식은 0.597과 0.912, 창업의지는 0.578과 0.905로 모두 검정기준을 충족하였다. 더불어 Cronbach's  $\alpha$  계수에 의한 신뢰성 검증결과에서도 모두 0.8을 넘어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양호하게 나타났다.

판별타당성 검정결과, 연구변수의 구성개념 AVE 제곱근은 각각 0.711, 0.717, 0.766, 0.709, 0.773, 0.760으로서 모두 각 변수 간 상관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도 충족되었다.



<표 6> 판별타당성 검정결과

| 변수           | 1      | 2      | 3      | 4      | 5      | 6 | AVE제곱근 |
|--------------|--------|--------|--------|--------|--------|---|--------|
| 자율성          | 1      |        |        |        |        |   | 0.711  |
| 유능성          | .723** | 1      |        |        |        |   | 0.717  |
| 관계성          | .621** | .704** | 1      |        |        |   | 0.766  |
| 혁신성          | .528** | .607** | .557** | 1      |        |   | 0.709  |
| 창업지원<br>정책인식 | .333** | .376** | .354** | .416** | 1      |   | 0.773  |
| 창업의지         | .175** | .238** | .235** | .567** | .333** | 1 | 0.760  |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하다

<표 7> 집중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결과

| 변수                                   | 비표<br>준화<br>계수 | S.E   | C.R.  | 요인<br>부하<br>량 | 오차<br>분산 | AVE  | 개념<br>신뢰<br>도 | Cron<br>bach'<br>s α |       |
|--------------------------------------|----------------|-------|-------|---------------|----------|------|---------------|----------------------|-------|
| 자<br>율<br>성                          | 자율성6           | 1     |       | 0.753         | 0.557    | .505 | .859          | .881                 |       |
|                                      | 자율성5           | 1.028 | 0.076 | 13.593        | 0.767    |      |               |                      | 0.54  |
|                                      | 자율성4           | 1.008 | 0.071 | 14.134        | 0.795    |      |               |                      | 0.432 |
|                                      | 자율성3           | 1.047 | 0.077 | 13.539        | 0.764    |      |               |                      | 0.57  |
|                                      | 자율성2           | 0.931 | 0.069 | 13.55         | 0.765    |      |               |                      | 0.449 |
|                                      | 자율성1           | 0.771 | 0.072 | 10.648        | 0.613    |      |               |                      | 0.719 |
| 유<br>능<br>성                          | 유능성6           | 1     |       | 0.758         | 0.62     | .515 | .864          | .886                 |       |
|                                      | 유능성5           | 0.837 | 0.068 | 12.333        | 0.691    |      |               |                      | 0.641 |
|                                      | 유능성4           | 0.972 | 0.063 | 15.501        | 0.845    |      |               |                      | 0.317 |
|                                      | 유능성3           | 0.886 | 0.065 | 13.672        | 0.757    |      |               |                      | 0.488 |
|                                      | 유능성2           | 0.934 | 0.07  | 13.298        | 0.739    |      |               |                      | 0.608 |
|                                      | 유능성1           | 0.857 | 0.066 | 13.057        | 0.727    |      |               |                      | 0.547 |
| 관<br>계<br>성                          | 관계성6           | 1     |       | 0.76          | 0.599    | .587 | .895          | .918                 |       |
|                                      | 관계성5           | 0.913 | 0.066 | 13.771        | 0.755    |      |               |                      | 0.515 |
|                                      | 관계성4           | 1.166 | 0.075 | 15.605        | 0.84     |      |               |                      | 0.463 |
|                                      | 관계성3           | 0.993 | 0.066 | 15.111        | 0.817    |      |               |                      | 0.4   |
|                                      | 관계성2           | 1.06  | 0.068 | 15.506        | 0.836    |      |               |                      | 0.397 |
|                                      | 관계성1           | 1.039 | 0.067 | 15.484        | 0.835    |      |               |                      | 0.384 |
| 혁<br>신<br>성                          | 혁신성6           | 1     |       | 0.836         | 0.554    | .503 | .858          | .909                 |       |
|                                      | 혁신성5           | 0.808 | 0.05  | 16.028        | 0.778    |      |               |                      | 0.545 |
|                                      | 혁신성4           | 0.809 | 0.055 | 14.635        | 0.731    |      |               |                      | 0.736 |
|                                      | 혁신성3           | 0.966 | 0.052 | 18.652        | 0.86     |      |               |                      | 0.424 |
|                                      | 혁신성2           | 0.952 | 0.058 | 16.473        | 0.793    |      |               |                      | 0.687 |
|                                      | 혁신성1           | 0.887 | 0.058 | 15.221        | 0.751    |      |               |                      | 0.782 |
| 창<br>업<br>지<br>원<br>정<br>책<br>인<br>식 | 창업지원6          | 1     |       | 0.839         | 0.425    | .597 | .912          | .941                 |       |
|                                      | 창업지원5          | 1.063 | 0.057 | 18.73         | 0.848    |      |               |                      | 0.449 |
|                                      | 창업지원4          | 1.045 | 0.055 | 19.123        | 0.858    |      |               |                      | 0.396 |
|                                      | 창업지원3          | 1.062 | 0.058 | 18.148        | 0.831    |      |               |                      | 0.51  |
|                                      | 창업지원2          | 1.009 | 0.057 | 17.589        | 0.815    |      |               |                      | 0.52  |
|                                      | 창업지원1          | 1.015 | 0.056 | 18.148        | 0.831    |      |               |                      | 0.466 |
|                                      | 창업지원7          | 1.017 | 0.058 | 17.679        | 0.818    |      |               |                      | 0.519 |
| 창<br>업<br>의<br>지                     | 창업의지6          | 1     |       | 0.866         | 0.72     | .578 | .905          | .964                 |       |
|                                      | 창업의지5          | 1.046 | 0.045 | 23.318        | 0.909    |      |               |                      | 0.498 |
|                                      | 창업의지4          | 1.027 | 0.047 | 21.968        | 0.883    |      |               |                      | 0.64  |
|                                      | 창업의지3          | 1.094 | 0.045 | 24.15         | 0.923    |      |               |                      | 0.449 |
|                                      | 창업의지2          | 1.117 | 0.044 | 25.198        | 0.94     |      |               |                      | 0.353 |
|                                      | 창업의지1          | 0.942 | 0.044 | 21.656        | 0.877    |      |               |                      | 0.573 |
|                                      | 창업의지7          | 0.953 | 0.048 | 19.812        | 0.838    |      |               |                      | 0.83  |

### 4.3.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본 연구변수의 피어슨 상관관계는 상단의 <표 6>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설정한 가설의 정(+)의 흐름과 일치하고,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모든 변수의 결과가 유의하여 법칙타당성도 충족되었다.

### 4.4. 가설검증

본 논문의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표 8>과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크게  $\chi^2$  과 GFI, AGFI, RMSEA 등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설명하는 절대적합지수와 NFI, IFI, CFI, TLI 등 기초모델에 대해서 제안모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증분적합지수를 통해 검증한다. 연구모형 적합도에 대한 절대적인 검정기준은 없으나 <표 8>처럼 일반적인 기준치가 권장되고 있다. 본 연구모형은  $\chi^2$ , RMR 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으로서 적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연구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 적합도 지수     |               | 기준값                                   | 측정값                        |
|------------|---------------|---------------------------------------|----------------------------|
| 절대<br>적합지수 | CMIN(d.f., p) | $p > .05$                             | 436.474 (224, $p = .000$ ) |
|            | RMR           | 0.05 이하 권장                            | 0.076                      |
|            | GFI           | 0.9 이상 권장                             | 0.888                      |
|            | RMSEA         | 0.1 이하 보통<br>0.08 이하 양호<br>0.05 이하 좋음 | 0.055                      |
| 증분<br>적합지수 | NFI           | 0.9 이상 권장                             | 0.933                      |
|            | RFI           | 0.9 이상 권장                             | 0.925                      |
|            | IFI           | 0.9 이상 권장                             | 0.966                      |
|            | TLI           | 0.9 이상 권장                             | 0.962                      |
|            | CFI           | 0.9 이상 권장                             | 0.9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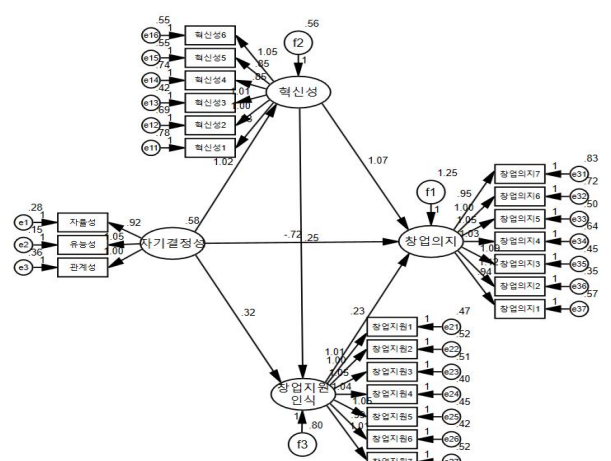
본 논문의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그림 3>와 같이 AMOS 통계패키지를 통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하였다. 예측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결과에서도 모두 공차한계 (Tolerance)는 0.1 이상, 분산팽창계수(VIF)는 10 이하로서 상관정도가 낮아 분석결과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자기결정성; 0.574 & 1.741, 혁신성; 0.565 & 1.769, 창업지원정책인식; 0.797 & 1.255).

연구가설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에 앞서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들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창업의지

| 독립변수  | 비표준 계수 |       | 표준 계수   | t    | 유의 수준  | 다중공선성  |      |      |
|-------|--------|-------|---------|------|--------|--------|------|------|
|       | B      | 표준 오차 | $\beta$ |      |        | 공차 한계  | VIF  |      |
| 상수    | (상수)   | 4.547 | .371    |      | 12.266 | .000   |      |      |
| 통제 변수 | 성별더미   | 성별 더미 | -.308   | .181 | -.099  | -1.701 | .090 | .924 |
|       | 연령더미   | 연령 더미 | -.246   | .327 | -.049  | -.752  | .453 | .736 |
|       | 학력더미   | 학력 더미 | -.524   | .196 | -.153  | -2.678 | .008 | .951 |
|       | 결혼더미   | 결혼 더미 | .171    | .227 | .053   | .750   | .454 | .612 |
|       | 가족더미   | 가족 더미 | -.133   | .207 | -.040  | -.642  | .522 | .792 |
|       | 소득더미   | 소득 더미 | -.141   | .230 | -.041  | -.611  | .541 | .689 |
|       | 규모더미   | 회사 더미 | -.367   | .176 | -.120  | -2.084 | .038 | .945 |
|       | 업종더미   | 업종 더미 | .027    | .181 | .009   | .147   | .883 | .922 |
|       | 직책더미   | 직책 더미 | .405    | .221 | .132   | 1.832  | .068 | .598 |
|       | 근속더미   | 근속 더미 | -.041   | .225 | -.013  | -.181  | .856 | .602 |

\* 종속변수: 창업의지, R=.266, R<sup>2</sup>=.071, F=2.280(p=.000)  
 \* 통제변수: 성별(남성=0, 여성=1), 연령(40세미만=0, 40세이상=1), 학력(4년제대졸=0, 기타=1), 결혼(기혼=0, 미혼=1), 가족수(무자녀=0, 기타=1), 소득수준(200만원~400만원미만=0, 기타=1), 회사규모(창업중소기업=0, 중견대기업=1), 업종(제조업=0, 기타=1), 직책(과장이하=0, 기타=1), 근속연수(10년미만=0, 20년이상=1)



<그림 3>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결과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과관계 가설 H2~H6과 매개가설 H7~H9는 채택되었으나 가설 H1은 기각되었다. 다음은 각 변수의 가설 분석결과이다.

**4.4.1. 자기결정성이 창업의지, 혁신성, 창업지원 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H1, H2, H3)**

본 연구의 결과 <표 10>와 같이 자기결정성이 혁신성, 창업 지원정책인식에 긍정(+)의 영향에 대한 가설 H2, H3을 지지하고 있으나 자기결정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H1을 기각하고 있다. 가설 H1 검증결과, 경로 계수와 C.R.값이 0.163과 -4.442로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기각되었다. 가설 H2와 H3의 검증결과, 경로계수와 C.R.값이 각각 1.017과 10.986, 0.324와 2.718로서 모두 유의수준  $p<0.05$ 에서 채택되었다.

가설 H1의 자기결정성이 창업의지에 정(+)의 효과를 검증한 다수의 선행연구와 반대 결과이다. 이는 자기결정성이 높을수록 사내벤처 창업의도는 낮아진다는 결과(이하린·박윤희, 2021)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자기결정성의 동기요인으로서 매개요인의 개입없이 창업의지와 직접 영향관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되며, 특히 산업생태계의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대안을 모색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H2의 결과는 조직이 자기결정성을 지원할 때 혁신성은 증가될 수 있으며(Mumford & Gustafson, 1988),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유능감, 자율성)이 높으면 기업가정신(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에도 정(+)의 영향(김성환 외, 2015, Chang & Choi, 2013)를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예비창업자의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가설 H3의 결과는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이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정부창업교육지원의 조절효과(김성환 외, 2015)와 자기결정성이 정부지원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이 있다(안희수, 2019)는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추론한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자기결정성이 성공적인 창업을 고려할 때 창업지원정책인식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 자기결정성이 창업의지, 혁신성, 창업지원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

| NO. | 경로             | 방향 | 경로계수   | S.E.  | C.R.   | p값    | 검증 |
|-----|----------------|----|--------|-------|--------|-------|----|
| H1  | 자기결정성→창업의지     | +  | -0.723 | 0.163 | -4.442 | ***   | 기각 |
| H2  | 자기결정성→혁신성      | +  | 1.017  | 0.093 | 10.986 | ***   | 채택 |
| H3  | 자기결정성→창업지원정책인식 | +  | 0.324  | 0.119 | 2.718  | 0.007 | 채택 |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다

#### 4.4.2.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H4, H5)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H4, H5를 지지하고 있다. 가설 H4, H5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와 C.R.값은 각각 1.073과 8.638, 0.231과 2.816으로서 유의미한 수준  $p < 0.05$ 에서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 H4 가설의 결과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검증한 결과(Entrialgo et al., 2000, Mandongwe & Jaravaza, 2020, 정행로, 2022)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예비창업자들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창업의지를 형성하는데 혁신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가설 H5 가설의 결과는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지원제도인 창업상담, 컨설팅지원, 조세지원, 창업자금지원제도 등의 인식이 높으면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을 확인(노현철, 2018, 안희수, 2019)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창업지원제도인식 등의 창업환경은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표 11>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NO. | 경로            | 방향 | 경로계수  | S.E   | C.R.  | p값    | 검증 |
|-----|---------------|----|-------|-------|-------|-------|----|
| H4  | 혁신성→창업의지      | +  | 1.073 | 0.124 | 8.638 | ***   | 채택 |
| H5  | 창업지원정책인식→창업의지 | +  | 0.231 | 0.082 | 2.816 | 0.005 | 채택 |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다.

#### 4.4.3. 혁신성이 창업지원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H6)

본 연구는 <표 12>과 같이 혁신성이 창업지원정책인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H6을 지지하고 있다. 가설 H6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와 C.R.값은 0.252와 3.027로서 유의미한 수준  $p < 0.05$ 에서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사회적기업가정신(혁신성·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지원정책(창업교육·자금지원)의 매개효과를 기반으로 추론한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위해 혁신성을 발현되는 과정에서 창업지원정책인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었다고 판단된다.

<표 12> 혁신성이 창업지원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

| NO. | 경로           | 방향 | 경로계수  | S.E   | C.R.  | p값    | 검증 |
|-----|--------------|----|-------|-------|-------|-------|----|
| H6  | 혁신성→창업지원정책인식 | +  | 0.252 | 0.083 | 3.027 | 0.002 | 채택 |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다.

#### 4.4.4. 혁신성, 창업지원정책인식의 매개효과(H7, H8, H9)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이 각각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H7, H8과 창업지원정책이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H9를 모두 지지하고 있다.

매개효과(부분, 완전) 여부는 통계적 유의성을 근거로 부분 및 완전매개를 판정하였다. 가설 H7, H8을 검증한 결과,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이 완전매개하고 있으며, 가설 H9를 검증한 결과,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창업지원정책인식이 부분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팬텀변수를 생성시키고 유의확률 0.05에서 부트스트래핑을 5000회 실행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모두 0.05보다 작아 매개효과 가설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 H7, H8에서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이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의 결과는 자기결정성은 동기이론에 불포함에 따라 매개변수 없이는 기각되었으나,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의 영향으로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VUCA시대의 예비창업자들의 자기결정성만으로는 창업의지를 다지고 창업으로 전환하기에는 동기이론으로서의 한계와 여러가지 위협요인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상에 없는 창의적이고 유용한 가치를 발현하려는 창의성과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인식 등을 연계한 창업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성공 가능성을 높게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H9에서 창업지원정책인식이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의 결과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인식은 예비창업자들의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요소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결과

| NO. | 변수경로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효과   | 판단   | 간접효과 유의성 | 검증 |
|-----|---------------------|--------|-----------------------|-------|------|----------|----|
| H7  | 자기결정성→혁신성→창업의지      | -0.376 | 0.719*0.789<br>=0.567 | 0.191 | 완전매개 | 0.018**  | 채택 |
| H8  | 자기결정성→창업지원정책인식→창업의지 | 0.251  | 0.244*0.160<br>=0.039 | 0.290 | 완전매개 | 0.03**   | 채택 |
| H9  | 혁신성→창업지원정책인식→창업의지   | 0.789  | 0.268*0.160<br>=0.043 | 0.832 | 부분매개 | 0.001**  | 채택 |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하다

## V. 결론

### 5.1. 연구의 결과

산업생태계의 VUCA(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시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글로벌 경영환경의 급변에서 “변화와 혁신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업과 개인이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말을 의미한다. 이런 산업생태계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직장인들은 중장기적 대안으로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

창업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특히 일자리 창출에 과급효과가 있을 것 기대된다. 산업생태계의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지속적 경제활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려는 자기결정성이 중요한 핵심요소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직장인들이 급변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사업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성이 중요하게 작동될 것이며, 자기결정성을 기반으로 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첫째, 직장인의 자기결정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자기결정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의 핵심요소임을 확인한 선행연구(Chang & Choi, 2013; Ryan & Deci, 2000)의 반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결정성은 동기요인에 불과함에 따라 급변하는 산업기술의 발달과 산업생태계의 불안요소가 커지는 지금의 시대적 상황의 영향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매개변수의 개입없이 창업의지와 직접연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산업생태계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현실에서 자기결정성만으로 성급한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대안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자기결정성이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 간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창업에 바로 도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인생경로 관점에서 혁신적인 경험의 필요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도를 높여서 단계적으로 준비하려는 심리가 작동된 것을 판단된다.

둘째, 자기결정성이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창업의지의 선행요인으로서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은 예비창업자에게 요구되는 필수적 덕목이자 선결과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등 자기결정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의 제공 및 실무 능력 배양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예비창업자들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창업의지를 형성하는데 혁신성이 핵심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창업지원정책인식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인식은 창업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혁신성이 창업지원정책인식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예비창업자들이 혁신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고려사항으로 시설과 자금, 공간, 인프라, 기술 지원 등의 지원정책의 중요하게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은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혁신성과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인식은 직장인의 자기결정성이 창업의지를 높이는 데 변화와 혁신의 가치를 현실화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창업지원정책인식은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5.2 시사점과 향후 과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의 자기결정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 등의 매개변수로 다룬 창업관련한 연구로서 직장인 대상의 연구범위와 직장인의 경력경로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자기결정성이라는 인간의 내재적 동기가 창업의지에 매개변수 없이 직접적인 자극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매개변수에 의한 완전매개 효과가 의미하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직장인을 창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생경로에서 창업을 대안으로 모색할 때에 자기결정성의 동기유발을 기반으로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의 완전매개효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주도의 혁신성 사례연구 또는 프로젝트 참여 기회와 산학협력의 혁신활동의 평가체계와 연계된 물적·인적 지원정책 등의 확산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에서는 예비창업패키지 699억, 초기창업패키지 593억, 창업도약패키지 592억, TIPS 4,715억 등 4가지는 중기부 창업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적, 물적으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을 확대(뉴스1, 2024)하고 있지만, 적잖게 활용성에 대해 인지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들에게 창업지원정책인식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경우 적절한 보상제도 또는 공정 위 또는 동반성장 관련한 기업평가의 요소로 포함하는 정책을 도입된다면 직장인들에게 저변 확대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연구에서 표본의 선정 및 분석과정에서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발전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설문조사에서 보편적으로 유발되는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단일요인적 검증형태에서 오는 오류를 최소화하여 왜곡 현상이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중단연구를 진행 또는 응답의 원천을 분산하는 등의 좀더 세분화된 체계적인 연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결정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실증연구로서 자기결정성의 하위변수를 통합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자기결정성의 하위변수별로 세분화하고 매개변수와의 영향관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결정성의 독립변수로는 직장인의 특성을 모두 대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직장인들의 개인적 특성과 역량, 시대적 특성 및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다양성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넷째, 자기결정성이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창업의지가 형성되고, 향후에 창업행동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장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제4차산업혁명의 급변에 따른 VUCA시대에 직장인에서 성공적인 인생경로가 형성될 것이다. 또한 직장인의 자기결정성에 기반한 직장경험과 창업은 창업활성화에 도모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바탕이 형성되고, 국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로 고용지표가 개선되는데 본 연구가 작지만 순기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

강은정(2023). *경력단절 여성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김봉준·조성희(2014). 대학생 창업의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지식기반 창업에 초점. *한국창업학회지*, 9(4), 86-106.

김성환·복경수·박재춘(2015).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5), 15-26.

김진희(2019). *외식 서비스업 종사자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외식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노현철(2018). *예비창업자의 개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노현철·현병환(2017). 예비창업자의 개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31(3), 35-66.

뉴스1(2024). *역대 CES 최대 실적...혁신기업 키워낸 중기부 창업정책은?*. Retrieved(2024.01.09.) <https://www.news1.kr/articles/5284052>

동아일보(2023). *퇴직희망 연령은 60세. 실제 퇴직은 53세 예상*. Retrieved(2024.01.03.) from:<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016/121679269/1>.

박재춘·김성환(2017). 예비창업자의 진로불확실성과 진로교육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벤처창업연구*, 12(1), 73-85.

법제처(2018).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Retrieved(2023.11.13.) from: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0255](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0255)

송중호(2011). *청년창업 성공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년창업 사관학교 운영사례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안은주(2021). *직장인의 고용환경 요인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안은주·양동우(2020). 직장인의 직무불안정성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Shapero의 창업이벤트모델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42(3), 275-304.

안희수(2019). *자기결정성이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엄태규(2023). *창업 실패 두려움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우종필(2015). 구조방정식모델과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모델 및 조절된 매개모델에 대한 고찰. *상품학연구*, 33(4), 45-56.

유호연(2021).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환경이 이직의도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윤방섭(2004). 창업의지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17(2), 89-110.

이수아(2019). *예비청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사회적 자본,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이선협(2020). *여성창업자의 성격특성(Big 5)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이선협·안은재(2018). 여성창업자의 창업동기가 기업가지향성과 창업의지를 매개로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3(6), 95-112.

이영섭·최주철(2018). 호텔 서비스가 멤버십 프로그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특급호텔 상품타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0(4), 229-248.

이준구(2021). *창업가 역량특성과 기업가정신이 창업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코노미뉴스(2023). *직장인 10명 중 7명, 창업할 것*. Retrieved(2023.10.03.) from:<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299>.

이하린·박윤희(2021). 자기결정성과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이 사내벤처 창업의도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역할확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기업교육과인재연구*, 23(3), 67-99.

임재성(2023). 직장역경과 직무열정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창의성 매개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8(4), 193-206.

임재성·양동우(2022). 재직자의 기업가적 지향성, 보상만족, 지속학습,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혁신행동 매개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7(1), 89-106.

정행로(2022). *직장인의 창업생태계 인식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헌배(2016). 창업학의 정의와 연구과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 연구*, 11(3), 77-85.

정형진(2022). *코로나19 이후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특성이 정책수혜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조병주(1998). 교육과정전개와 효과적 교수방법. *Korea Business Review*, 2(2), 27-48.

조정현(2013). *복부비만 여성을 위한 자기결정성 이론 기반 동기강화 체중감소 프로그램 효과*.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통계청(2023). *5월 경제활동인구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Retrieved(2024.01.03.) from:[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200&bid=210&act=view&list\\_no=426398](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200&bid=210&act=view&list_no=426398)

홍정표·양혜술(2014). 대학생들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12(11), 141-157.
- 홍진기(2016). 창업자의 개인특성, 사회적자본, 창업정책환경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황재일(2013). 리더십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학습전이효과에 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Ahn, E. J.(2021). *A study on the employment environment factors of office workers and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s*.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Venture.
- Ahn, E. J., & Yang, D. W.(2020). The influence of job instability and entrepreneurship of office workers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focusing on Shapero's startup event model. *Research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42(3), 275-304.
- Ahn, H. S.(2019).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determination on the willingness of potential founders to start a busines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 Amabile, T. M.(1988). A model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Organizations. In B.M. Staw & L.L. Cummins(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0, 123-167.
- Atitsogbe, K. A., Mama, N. P., Sovet, L., Pari, P., & Rossier, J.(2019). Perceived employabil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cross univer sity students and job seekers in Togo: The effect of career adapta bility and self-efficacy. *Frontiers in psychology*, 10, 180.
- Chang, S. D., & Choi, S. B.(2013). Middle-level managers' perception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their innovative work behaviors in SMEs, *KAHRM*, 20(2), 27-54.
- Cho, B. J.(1998). Curriculum development and effective teaching methods. *Korea Business Review*, 2(2), 27-48.
- Cho, J. H.(2013). *Effectiveness of a motivational weight loss program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for women with abdominal obesity*.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Covin, J. G., & Slevin, D. P.(1989).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firms in hostile and benign environmen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1), 75-87.
- Dong-A Ilbo(2023). Retrieved age is expected to be 60 years old. Actual retirement is expected to be 53 years old. Retrieved(2024.01.03). From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016/121679269/1>
- Drucker, P. F.(1986).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 and principles. *New York: Harper & Row*.
- Economy News(2023). 7 out of 10 office workers will start a business. Retrieved(2023.10.03)from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299>.
- Entrialgo, M., Fernandez, E., & Vazquez, C.(2000). Characteristics of managers as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some Spanish evidence', *Enterprise and Innovation Management Studies*, 1(2), 187-205.
- Ferreras-Méndez, J. L., Olmos-Peñuela, J., Salas-Vallina, A., & Alegre, J.(2021).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new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in SMEs: The mediating role of business model innovation. *Technovation*, 108.
- Fornell, C., & Larcker, D. F.(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agné, M., Parker, S. K., Griffin, M. A., Dunlop, P. D., Knight, C., Klonek, F. E., & Parent-Rochelleau, X. (2022). Understanding and shaping the future of work with self-determination theory. *Nature Reviews Psychology*, 1(7), 378-392.
- Gartner, W. B., & Vesper, K. H.(1994). Experiment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successes and fail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3), 179-187.
- Gartner, W. B., Bird, B. J., & Starr, J. A.(1992). Acting as if: Differentiating entrepreneurial from organizational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3), 13-32.
- Gielnik, M. M., Bledow, R., & Stark, M. S.(2020). A dynamic account of self-efficacy in entrepreneurship.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05(5), 487.
- Gnyawali, D. R., & Fogel, D. S.(1994).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43-62.
- Holton, III, E. F., Bates, R. A., & Ruona, W. E.(2000). Development of a generalized learning transfer system inventory.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1(4), 333-360.
- Hong, J. K.(2016). *Effects of Founder's Personal Characteristics, Social Capital, and Entrepreneurship Policy Environment on Entrepreneurship Willingnes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Venture Graduate University.
- Hong, J. P., & Yang, H. S.(2014).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ollege students'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Digital Convergence Research*, 12(11), 141-157.
- Hwang, J. I.(2013). *Research on the effect of learning transfer in leader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Issam, M., & Sarah, C.(2023). L'influence de l'autoefficacité et l'autodétermination sur l'intention entrepreneuriale des étudi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on and Applied Studies*, 39(1), 100-108.
- Jeong, H. B.(2016). An exploratory study of the definition and research tasks of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77-85.
- Jeong, H. J.(2022).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livery system for the elderly job programs after COVID-19 on the recognition of policy beneficiarie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Jeong, H. R.(2022).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Venture.
- Johnson, B. R.(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model of

-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e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3), 39-54.
- Kang, E. J.(2023). *The Effect of the Entrepreneurship of Career Discontinued Women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Convergence Technology Start-up.
- Katz, J., & Gartner, W. B.(1988). Properties of Emerging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29-441.
- Kim, B. J., & Cho S. E.(2014).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University Student Entrepreneurship Intention: A Focus on Knowledge Technology Base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9(4), 86-106.
- Kim, J. H.(2019). *Effect of self-determination motives of workers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on the intention to start a food service busines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 Kim, S. H., Bok, K. S., & Park J. C.(2015). Effect of self-determination of prospective entrepreneurs on entrepreneurship and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5), 15-26.
- Kirwan, C., & Birchall, D.(2006). Transfer of learning from management development programmes: Testing the Holton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10(4), 252-268.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2018).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eaning of "entrepreneur" and "startup"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Support Act」)*. Retrieved(2023.11.13.) from: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0255](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0255)
- Le, Q. H., & Loan, N. T.(2022). Role of entrepreneurial competence, entrepreneurial education, family support and entrepreneurship policy in form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ial decision. *Pakistan Journal of Commerce and Social Sciences(PJCSS)*, 16(1), 204-221.
- Lee, H. R.(2021).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an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by leaders on in-house venture start-up intention and innov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Lee, H. R., & Park, Y. H.(2021). The effect of self-determination and leaders'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on in-house venture start-up intention and innovation behavior: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ole expansion self-efficacy. *Corporate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Research*, 23(3), 67-99.
- Lee, J. G.(202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start-up companies*.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echnology Management.
- Lee, S. A.(2019).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social capital,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of prospective young entrepreneur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gi University.
- Lee, S. H.(2020). *Effect of personality traits (Big 5) of female entrepreneurs on startup satisfaction*.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Venture.
- Lee, S. H., & Ahn, E. J.(2018). Effect of female entrepreneurs' entrepreneurial motivation on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through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wil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23(6), 95-112.
- Lee, Y. S., & Choi, J. C.(2018). Effect of hotel service on membership program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luxury hotel product types.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30(4), 229-248.
- Lim, J. S.(2023). The influence of workplace history and job passion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creativit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8(4), 193-206.
- Lim J. S., & Yang, D. W.(2022).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mpensation satisfaction, continuous learning, and employability of incumbent employees on entrepreneurship will: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novation behavio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7(1), 89-106.
- Mandongwe, L., & Jaravaza, D. C.(2020). Wome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subsistence marketplaces: The rol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demographic profiles in Zimbabwe. *Cogent Business & Management*, 7(1).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Mudambi, R., & Navarra(2007). Global Innovation in MNCs: The Effects of Subsidiary Self-Determination and Teamwork, *The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24, 442-455.
- Mumford, M. D., & Gustafson, S. B.(1988). Creativity syndrome: Integration, application and inno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3(1), 27-43.
- News 1(2024). *The largest CES performance ever... What is the SME start-up policy that fostered innovative companies?* Retrieved(2024.09.) <https://www.news1.kr/articles/5284052>.
- No, H. C.(2018).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rospective entrepreneurs and the impact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on entrepreneurship will: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Doctoral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 No, H. C., & Hyun, B. H.(2017).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rospective entrepreneurs and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on entrepreneurship will: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 support policies. *Productivity Papers*, 31(3), 35-66.
- Park, J. C., & Kim, S. H.(2017). The effects of career uncertainty and career education of prospective entrepreneurs on entrepreneurship and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etermin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1), 73-85.
- Podsakoff, P. M., MacKenzie, S. B., Lee, J. Y., & Podsakoff, N. P.(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879.
- Ryan, R. M., & Deci, E. L.(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Schumpeter, J. A.(1934). Change and the Entrepreneur, *Essays of JA Schumpeter*, 4(23), 45-91.
- Sheldon, K. M.(1995). Creativity and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8(1), 25-36.
- Song, J. H.(2011).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confidence of success in youth start-ups: focusing on the case of youth start-up military academy operation*.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 Statistics Korea(2023). *Results of a supplementary survey of the elderly in the Ma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Retrived (2024.03.) from:[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200&bid=210&act=view&list\\_no=426398](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200&bid=210&act=view&list_no=426398)
- Tung, L. C.(2011).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engineering students. City University of Hongkong: *Run Run Shaw Library*, 11(1), 67-86.
- Um, T. G.(2023). *Effect of fear of start-up failure on start-up inten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 Woo, J. P.(2015). A Study of Mediated Modulation Models and Modified Mediated Modulation Model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and Regression Analysis. *Research in Commerce*, 33(4), 45-56.
- Yoo, B. H.(2013). The effect of 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trinsic motivation on the possibility of start-up succes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6(10), 2669-2690.
- Yoo, H. Y.(2021).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the Job Environment of SME Workers on Turnover Intentions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at Chung-Ang University.
- Yoon, B. S.(2004). Determinants of Will to Start a Busines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Industry-Academic Management Research*, 17 (2), 89-110.
- Yukongdi, V., & Cañete, J. M.(2020). The Influence of Family, Human, Social Capital & Government Support Services on Women Entrepreneurial Start-up Decisions: A Qualitative Study. *Review of Integrative Business and Economics Research*, 9, 307-318.

# The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Office Workers: Focusing on the Dual Mediation of Innovativeness and Perception of the Startup Support System

Lim, Jae Sung\*

## Abstract

Recently, global business environment is changing dramatically along with the accelera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mid the war, climatic change, and geopolitical instability. Accordingly, it is difficult to predict or plan for the future as the volatility, complexity, ambiguity, and uncertainty of the industrial ecosystem continue to increase. Therefore, organizations are undergoing inevitable restructuring in accordance with their survival strategy, for instance, removing marginal businesses or firing. Accordingly, office workers are seeking a startup as an alternative for their continuous economic activity amid rising anxiety factors that make them think they would lose their jobs unintentionally. Here, this study is aimed to verify through what paths office workers' self-determination influences the process of converting to a startup. For this study, an online survey was carried out, and 310 respondents' valid data were analyzed through SPSS and AMOS.

To sum up the results, first, office workers' self-determination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self-determination had positive (+) effects on innovativeness and perception of the startup support system. This result shows that their psychology works to prepare step by step by accumulating innovative experiences and increasing perception of the startup support system from a long-term life path perspective rather than challenging startups right way. Second, innovativeness is found to have positive (+)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lso, perception of the startup support system had positive (+)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s implies that when considering startups, they are highly aware of the government's various startup support systems. Third, innovativeness is found to have positive (+) effects on perception of the startup support system. It is judged that perception of the startup support system is valid for prospective founders to exhibit their innovativeness and realize new ideas.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innovativeness and perception of the startup support system mediated correlation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perception of the startup support system mediated correlation between innovativenes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which shows that it is a crucial factor in entrepreneurial intention.

Although previous studies related to startups deal with students mostly, this study targets office workers who form a great part in economic activities, which makes it academically valuable in terms of being differentiated from others and extending the scope of research. Also, when we consider the fact that the motivation for self-determination alone fails to stimulate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he complete mediation of innovativeness and the startup support system, it has great implications in practical aspects such as the government's human and material support systems. In the selection and analysis of samples, this study exhibits a limitation that the problem of common method bias is not completely resolved. Also, additional definitive research is needed on whether entrepreneurial intention is formed and converted into startup behavior.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this study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psychological motives and startups which has not been handled sufficiently in previous studies. The conversion of office workers to startups is expected to have effects on individuals' economic stability and the state's job creation; therefore, it needs to be investigated continuously for its great value.

*KeyWords: Entrepreneurial intention, Self-determination, Innovativeness, Perception of startup support system, Office Workers*

\* First Author, Ph.D.in Business Administration, Samsung Electro-Mechanics Co., Ltd. Principal Professional, ljs3131@naver.com